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기조강연

이석우 (주)카카오 대표

르네상스 교육방식 도입해야

글_이강봉 사이언스타임즈 기자 aacc409@naver.com



(주)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을 처음 선보인 해가 2010년이다. 2010년 3월, iOS용 카카오톡을 선보인 후 약 5개월 뒤인 8월 안드로이드용 카카오톡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제 4년이 흘렀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가 됐다. 카카오톡의 '게임하기'는 세계 최초의 플랫폼 성공 사례라고 손꼽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강연 중 카카오톡을 언급할 정도다.

이 사회는 창의성 중심의 사회

지난 7월 11일 (주)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서울 코엑스(COEX)를 찾았다. '2014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기조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이 시대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사회는 대량생산이 보편화된 효율 중심 사회였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을 추구하면서 조직의 대형화, 기능의 전문화를 꾀했다는 것. 그러나 21세기 접어들면서 지식정화 사회가 도래했고, 이 사회는 창의성 중심의 사회라고 말했다.

또한 지식정화 사회에서는 복잡하고 다중적인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최적화된 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인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도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개발자들의 영역이 프로그램 언어를 입력하는 코딩 정도에 국한됐던 반면, 지금은 개발자들에게 경영마인드, 인문학적 소양, 협업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코딩에 대한 이해를 쌓으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쌓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었다. 대표적인 르네상스형 인재로 21세기 잡스와 같은 인재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 프로젝트식 융합 교육 도입해야

문제는 창의성을 가로막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업의 의미를 깨닫고 실제 제품개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식 교육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는 인문학적 소양, 경영마인드, 프로그램 개발을 두루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시대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출신이다. 이후 하와이주립대에서 역사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미국 루이스 앤드 클라크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변호사와 신문기자를 했으며, NHN 이사로 활동하다 (주)카카오를 창업했다.

이 대표는 과거처럼 글만 쓰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가면서 글을 쓰면서 코딩하는 법도 알아야 하고, 또한 경영, 인문학 등 다른 분야도 이해해야 하는, 융·복합적인 능력이 우대받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말했다. **ST**